

**방법으로서의 경계,  
공동체에서 연대체로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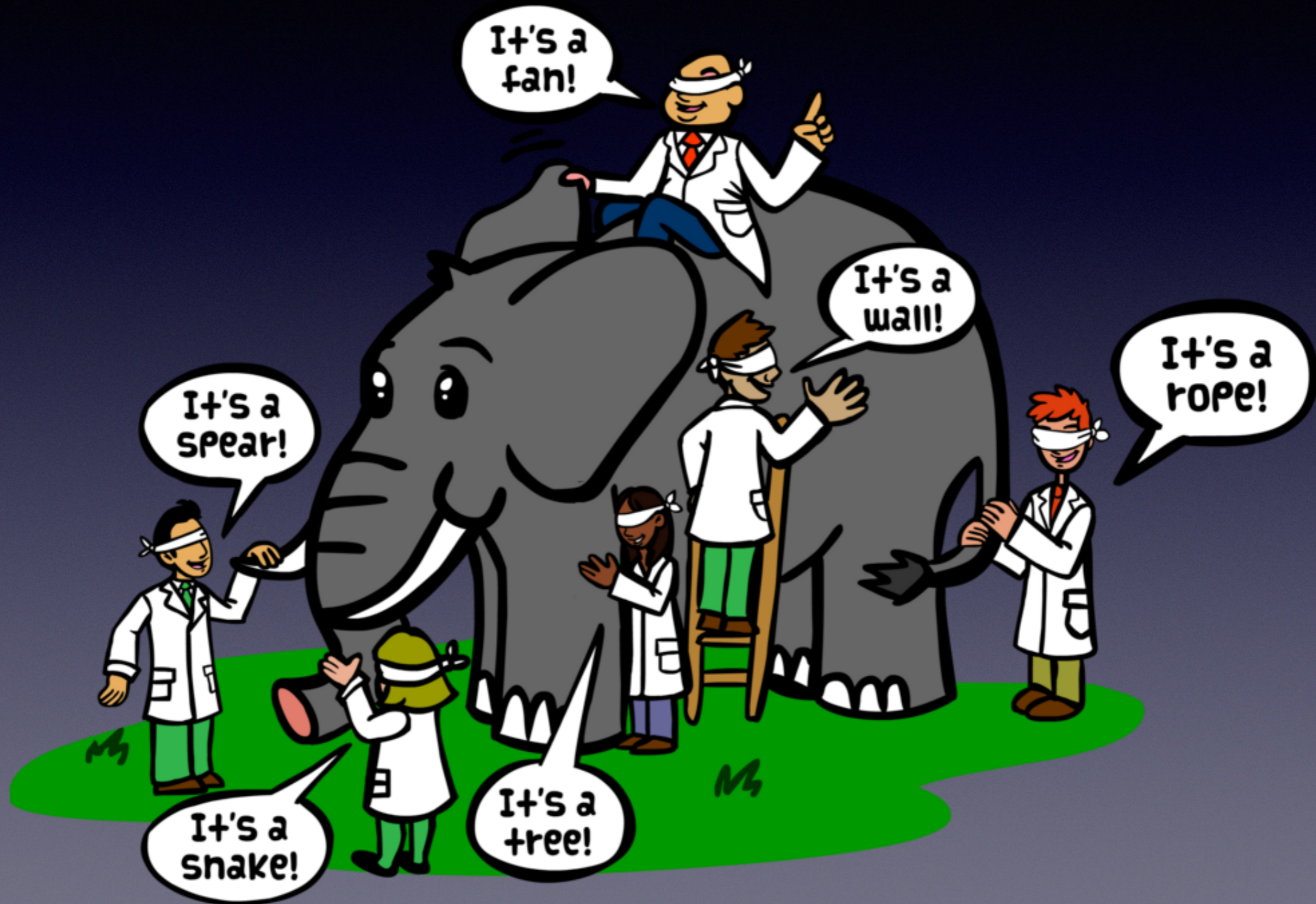
두루소통연구소  
채희태



시란 익숙한 것을 낯설게,  
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것이다!  
<T. S. Eliot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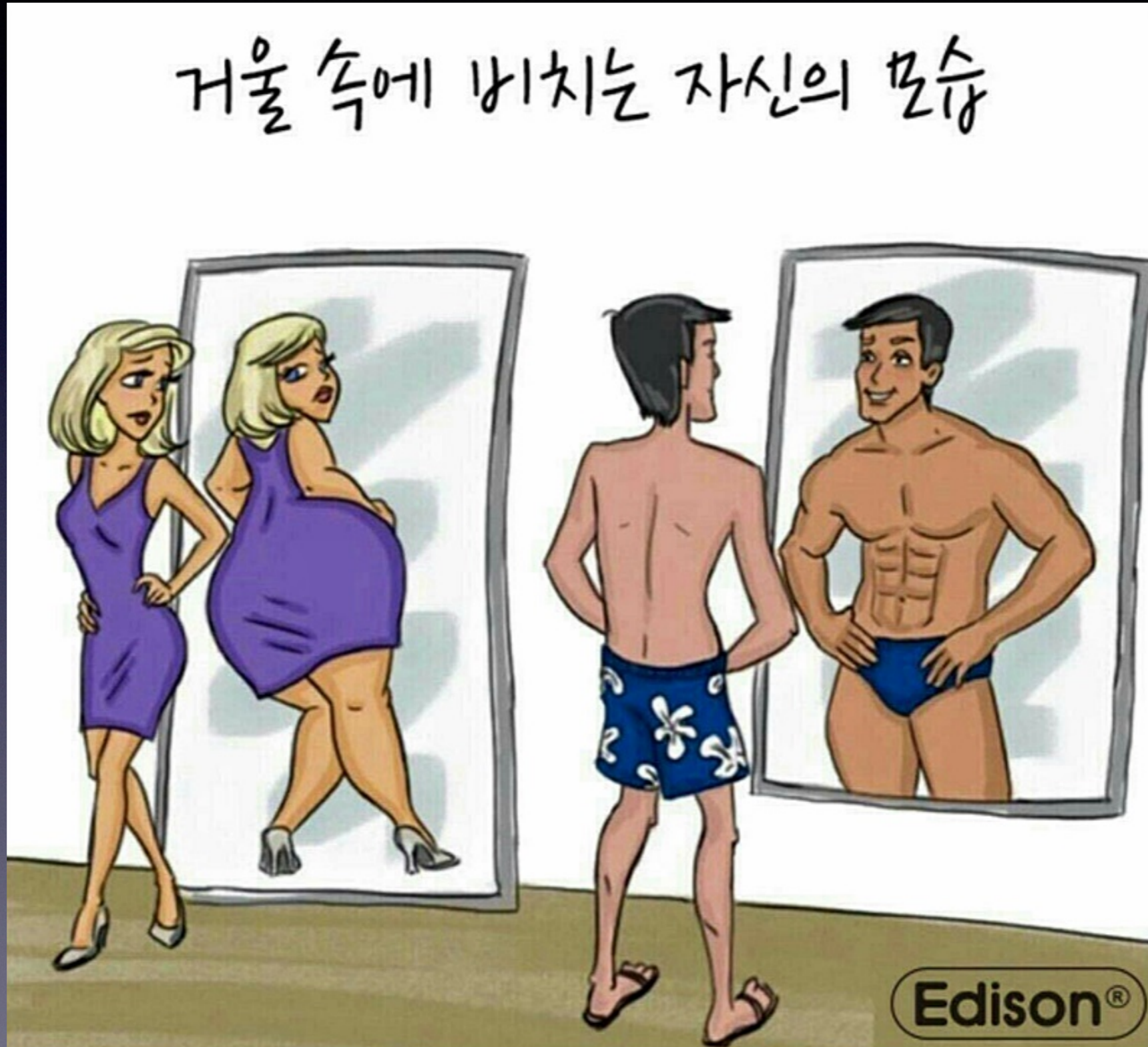
# Prologue

# 장님과 코끼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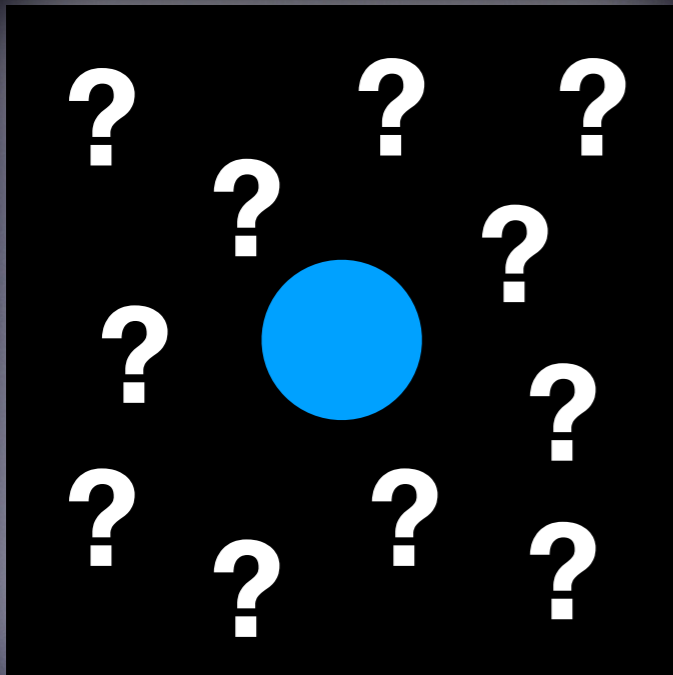
# 자기서술(EMIC)과 외부서술(etic)

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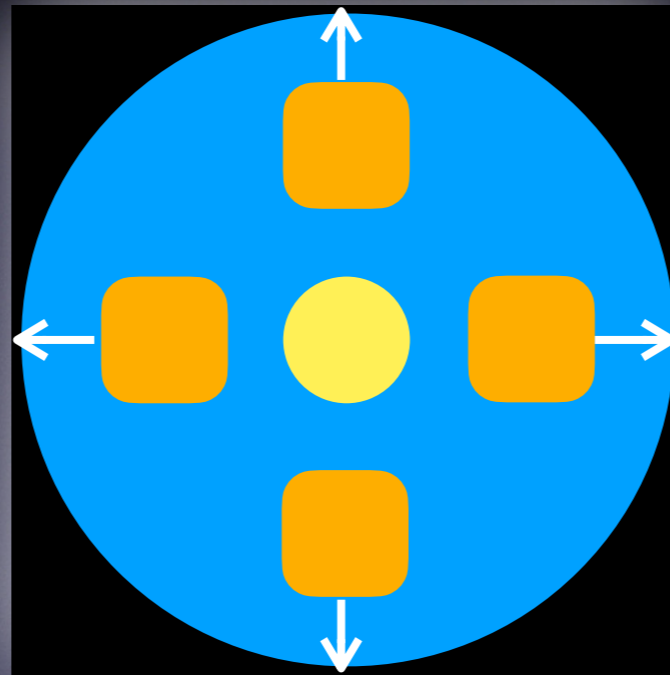


# 생존과 이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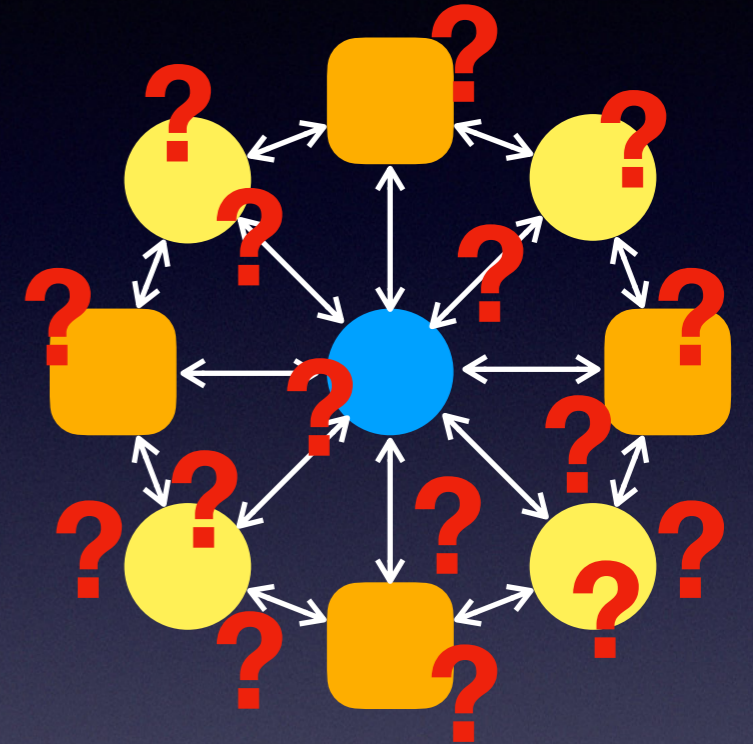
Classic



Moder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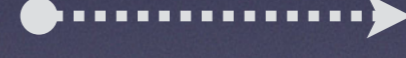
Post Normal



연대와 협력



선발과 경쟁



연대와 협력

평등과 분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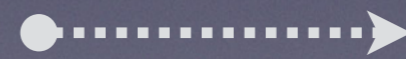


자유와 성장



평등과 분배

분리와 대체



융합과 보완

# 1st. 경계에 대하여

# 경계의 시작

선

악



# 경계의 시작

**지배**

**피지배**

# 경계의 시작

양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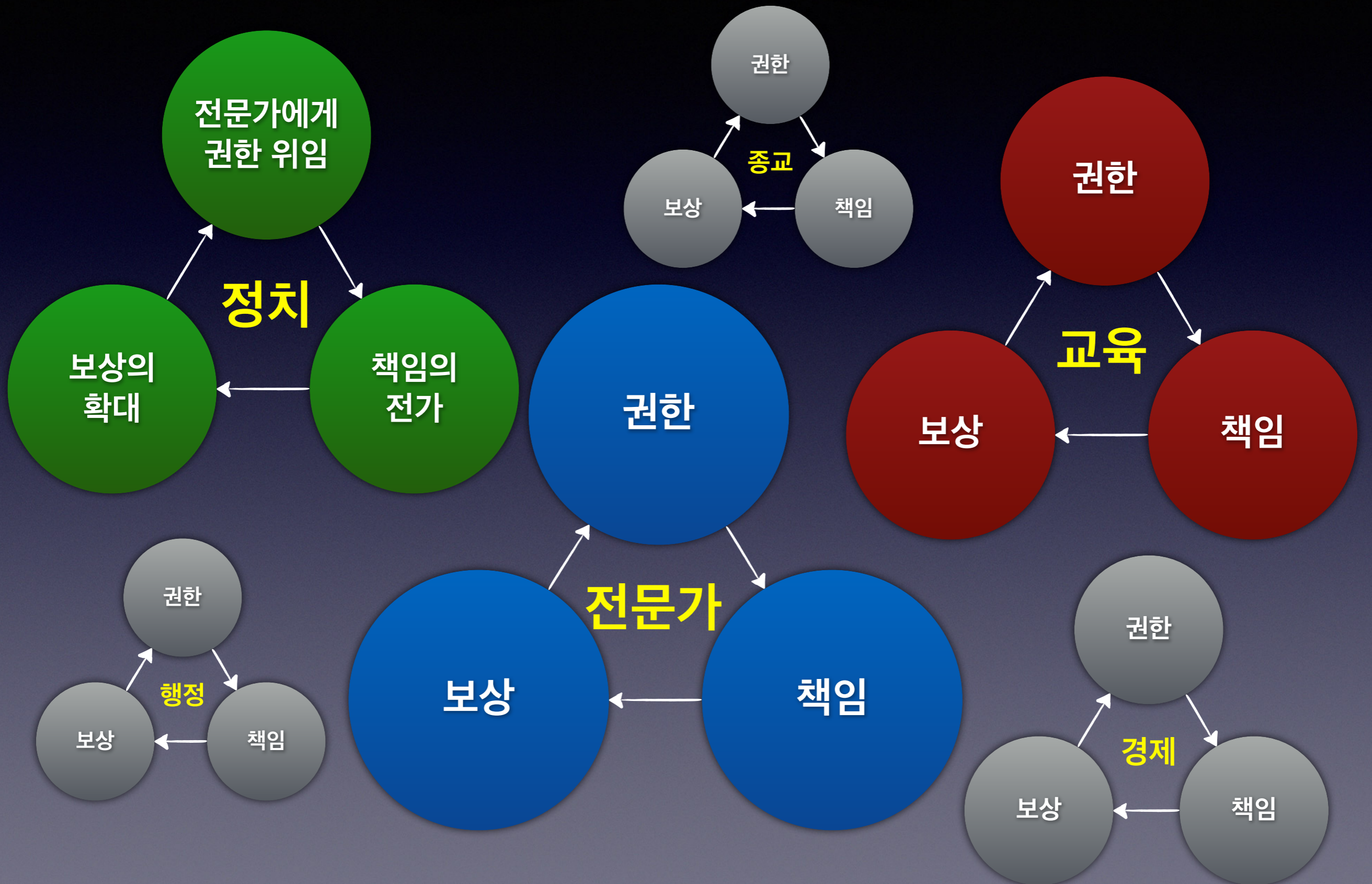
욕심

# 경계의 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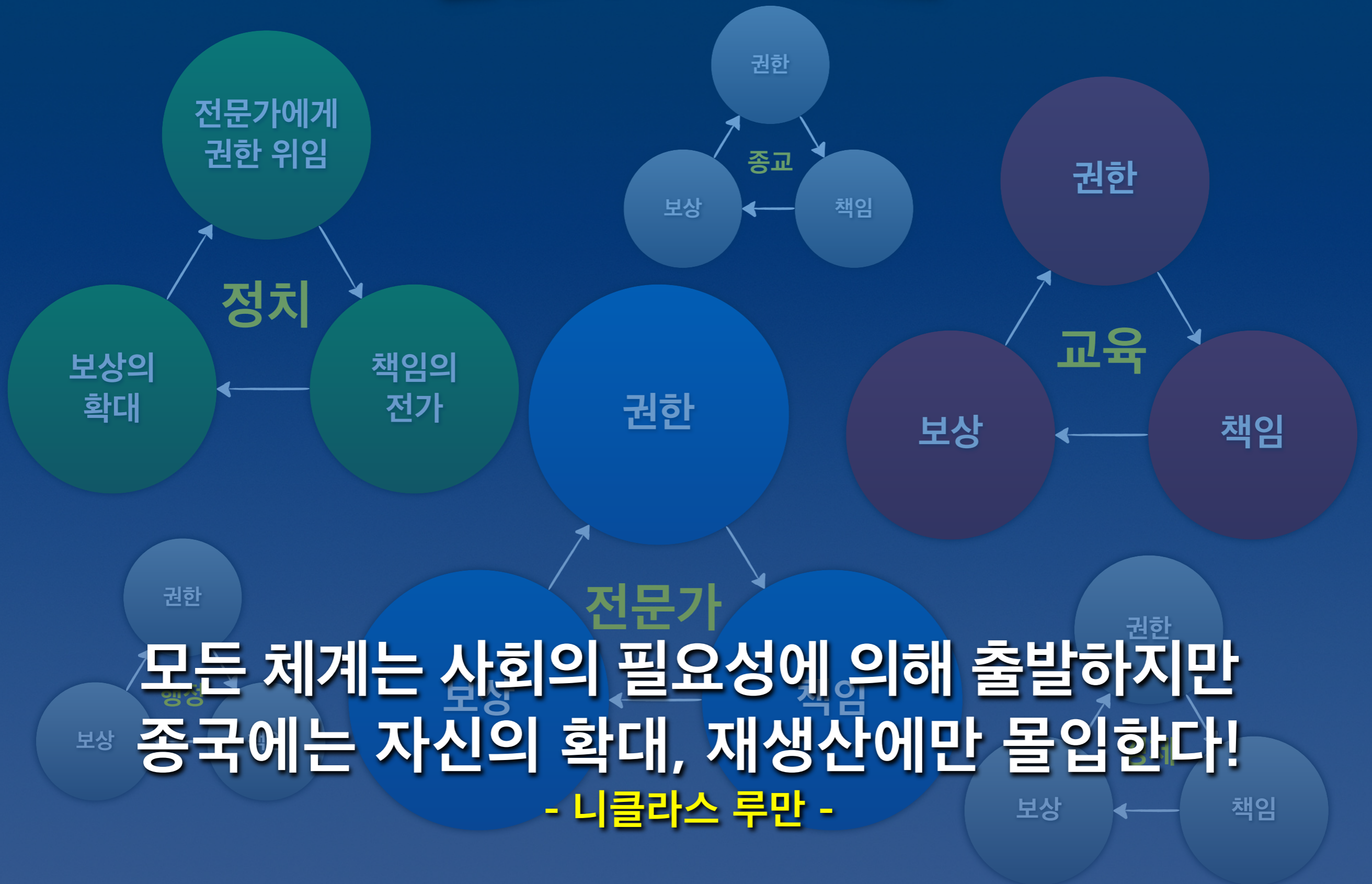


전문성(城)에 갇힌 인류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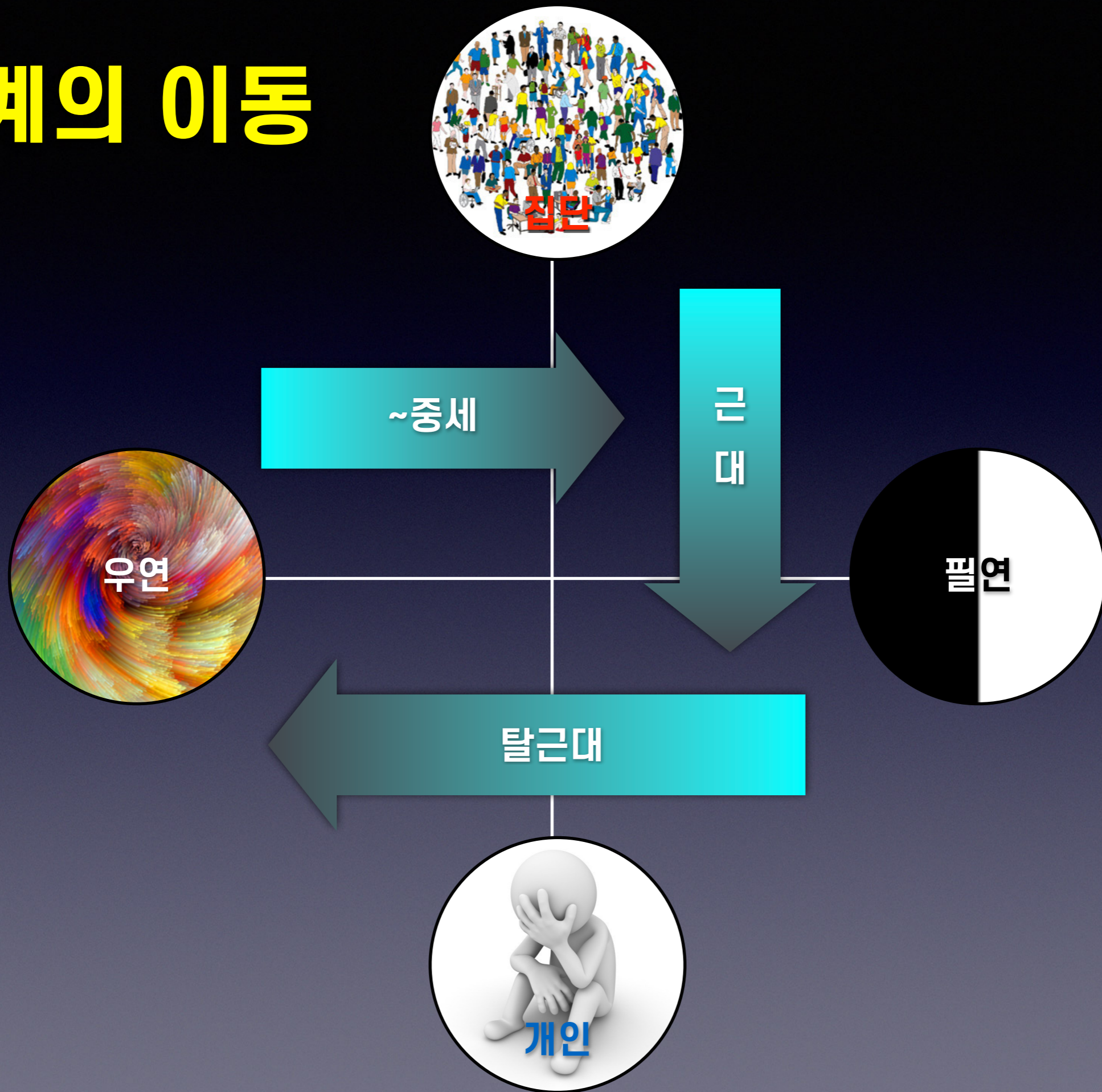
# 전문성의 3요소



# 전문성의 3요소



# 경계의 이동



2nd.

공동체는 무엇인가?  
무엇보다 가능한 한가?

# 가족은 공동체일까?





**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각종 ‘마을공동체 운동’들의 흥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?**

<박주형(2013), 도구화되는 공동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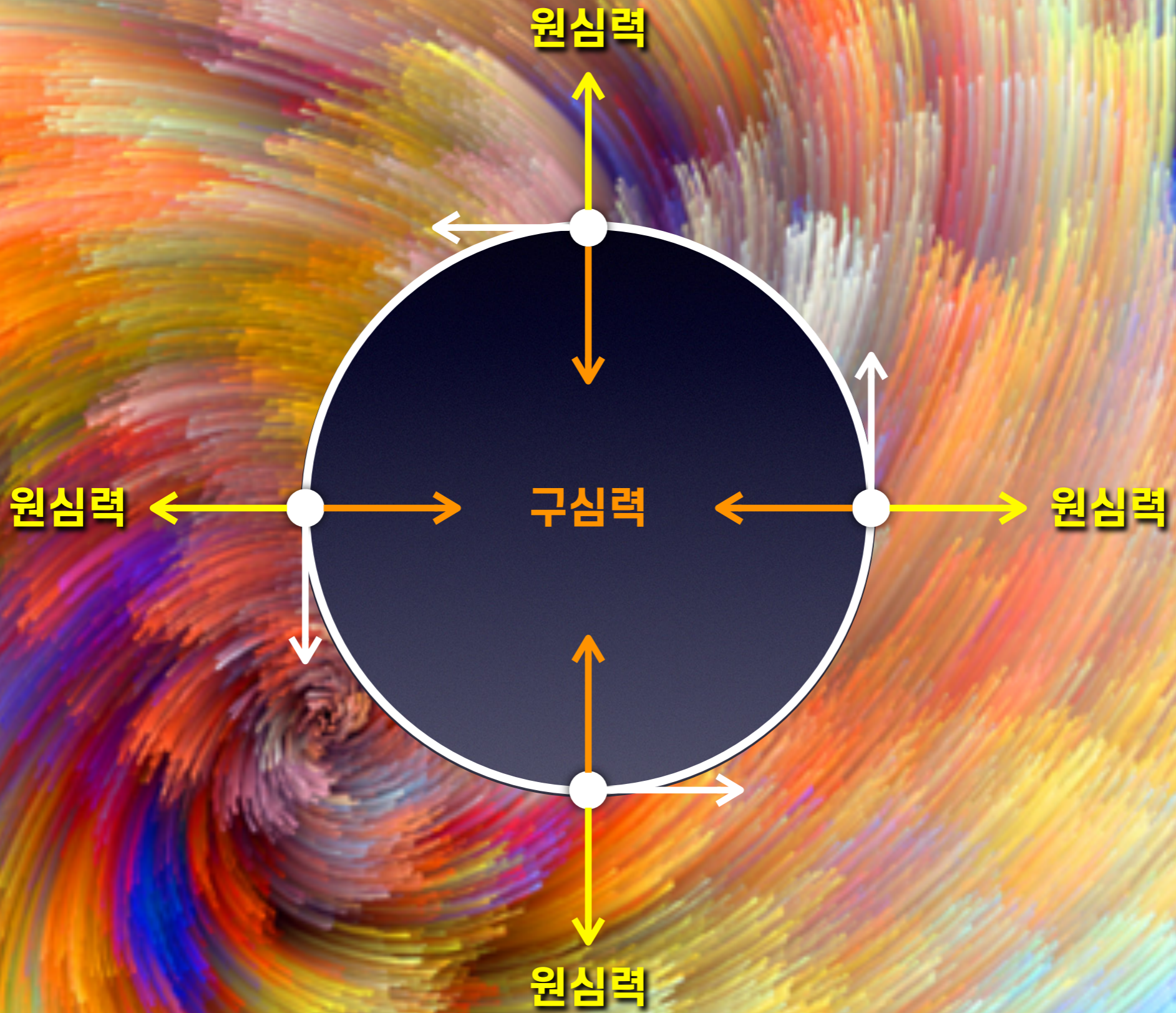
**‘공동체’라는 말과 그 개념은,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, 나치의 Volksgemeinschaft(국민 공동체)라는 덫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.**

<낭시·블랑쇼(2005), 밝힐 수 없는 공동체, 마주한 공동체>

**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 
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 
가치의 문제로 대입해 혐오한다면,  
그 사람이 주장하는 공동체는 선택일까, 배제일까?**

<채희태>

# 3rd. 제언





**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은 지구다!**

**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 
스스로 미래를 위해 의무를 떠안는  
'합의'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 
중요한 역량이다.**

**합의를 합이하자!**

**부정과 부실을 구분하자!**

**목표는 시민의 성장!**

# 목표는 시민의 성장!

## ❖ 시민의 정의

학생 : 교복 입은 시민  
공무원 : 공적 업무를 하는 시민  
교사 : 가르치는 시민  
학부모 : 자신보다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시민

## ❖ 성장의 정의

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 
다양성의 간극을 줄이는 것  
다양성이 균형을 잡는 것

# 진보와 보수의 새로운 정의

# 진보와 보수의 새로운 정의

취향을 가치로 착각!

VS

가치도 취향 아닐까?



**방법으로서의 경계,  
공동체에서 연대체로!**

두루소통연구소  
채희태

# Epilogue



**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조선에선 노비는 살 수 있소? 백정은?**

**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에는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?**

고맙습니다

( \_ \_ )